

타자로서 미국 연구하기

이 현 송*

차 례

1. 지역학의 개념 정의
2. 타자의 관점에서 본 미국 연구
3.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미국 연구

미국의 미국학회의 학문 분야를 모델로 하여 1965년에 우리나라에 한국아메리카학회가 결성된 이래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여전히 학문 분과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만들어진지 오래 되지 않은 다학제간 학문 분야가 그렇듯이 미국학의 경우에도 중주국인 미국학계에서 조차 학문의 영역과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미국학계의 고민에 덧붙여,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미국을 연구하는 경우 그들과 연구의 맥락이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지역학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정리해 본다. 미국이란 우리에게 타자인데, 이는 미국에서 타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과인 지역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계속 전개하기 전에 혼동을 막기 위해 미국 학계의 하나의 분과 학문인 미국학에서 하는 연구와 일반적으로 미국에 관한 연구를 구분하여 전자는 미국학으로 후자는 미국 지역학으로 지칭한다. 다음에서는 먼저 지역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지역학의 개념에서 미국에 관한 연구가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는지 살핀 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미국 지역학의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지역학전공 교수

1. 지역학의 개념 정의

지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학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와 교육이 행해졌던 데 기인한다. 과거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의 호기심에서 여행기 등에서 출발한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 각축을 하고 또 획득된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식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1920, 30년대 미국의 대학에서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시기에 지역학은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등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이 주로 담당하였다(김경일, 1996). 지역학이 이들에 의해 시발되었던 것은 아마도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기존 정보가 박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귀결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역사와 언어를 파악하는 것은 대상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대상 사회가 근대화된 서구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므로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인류학의 접근이 첫걸음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대는 물론 제2차대전을 계기로 미국에서 급속하게 발전한 지역학은 서구인들의 영향력 확장의 대상이 되는 제삼 세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지역학이라고 하면 주로 서구 문명에 포함되지 않은 서구인들에게 생소한 지역이 대상이 되었다. 즉 지역학이란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생성된 연구 분야로서, 지역 연구의 출생 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대체로 서구 문명지역 자신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제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세계에 대한 선진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장하는 데 지역학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문적인 위치가 보다 공고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학은 과거보다는 현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이 주도해왔다. 미국의 경우 지역학은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에서 출발한 초기의 전통에서 멀어지는 대신 정치학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정치학, 정책학, 국제정치학의 한 응용분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최협,

1997: 20-21).

한편 전후에 독립을 성취한 제삼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연구라는 이름 하에 선진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지역연구와는 달리 제삼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한 모델로 선진국을 연구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각자의 나라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선진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제삼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진국에 대한 지역연구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며 선진국의 사회와 문화는 주변적인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선진국에 대한 지역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이홍중, 2001). 요컨대 지역연구는 선진국이 제삼세계를 연구하는 경우나 제삼세계가 선진국을 연구하는 경우나 연구자가 처한 국가의 맥락에서 각자의 이해를 반영할 실용적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지역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학문을 지향한다. 지역학은 사회문화의 보편적 법칙에 대한 사회과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하나의 학문 분과에 의한 접근만으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크므로 개별 지역에 대한 실용적인 수준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과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어떤 현상이나 사례에 대하여 학문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이 상호 구분된 영역으로 파악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되어 발현되는 것이므로 한 측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지식 생산 체계가 각 학문 분과에 의해 상호 엄격히 구분되어 각자 자신만의 영역과 방법론을 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로 다른 학문 체계를 융합하여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70년대 이래 지역학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종합적 이해에 관한 지역학 고유의 독자적 방법과 이론을 개발하지 못한 결과 개별 분과학문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경일, 1998:32-33).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발판으로서 관심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반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제삼세계에서 서구 산업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실용적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와 자신의 사회발전에 응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또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비서구권이면서 서구의 문물을 수입해야 했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어떻게 지역학이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아베, 1998).

일본의 경우 지역 연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이다. 초기에는 서구 각국에서 연구된 성과를 문헌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본에서 지역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서구 국가들과 유사하다. 1970년대 중동전쟁과 오일쇼크에 의해 중동지역과 이슬람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후 냉전기주의 붕괴와 민족간 분쟁의 격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과 발전 등의 변화에 접하여 서구 이외의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와 기초연구가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결과, 198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러시아와 동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며, 여기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진다. 일본 정부기관인 문부성에서는 '지역연구의 추진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지역연구의 추진체제에 관한 조사연구', '종합적인 지역 연구에 관한 기관조사', '종합적인 지역연구기관의 기본구상조사', '지역연구기획 교류센터' 등으로 관련 연구를 조직 지원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조직들은 일본의 국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구는 학술적인 의의 이외에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실무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 지역학의 내용을 보면 초기에 언어 중심의 외국어학습이라는 한정된 역할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 문화, 정치, 경제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종합 학문으로서 대상 지역을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분과 학문과의 구분 문제를 낳기도 하나, 구체적인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학제의 지식을 종합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요구에 보다 적절히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여타 선진 산업국에 관한 연구가 지역학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미국 자체의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예컨대 미국 남부 문화나 혹은 식민시대의 퓨리턴 문화에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많은 것이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반면 일본의 많은 대학에서 미국에 관한 연구 및 교수에서 미국에 관한 교과과정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을 읽을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지역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Zhu, 1987). 중국에서 미국학이라고 하면 미국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위를 차지하며, 미국에서 행하는 미국학으로서 미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연구는 부차적인 관심을 차지한다. 또한 중국의 미국에 관한 연구는 미국 자체에 관한 연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로는 중국의 국내적 관심이 반영된 미국에 관한 연구라는 성격을 명확히 띠고 있다. 결과 중국의 미국에 관한 연구의 많은 부분은 중국의 쟁점에 관하여 미국 사회 문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관한 연구는 제삼세계 국가들이 선진 산업국을 연구하는 방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2. 타자의 관점에서 본 미국 연구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학자가 자신의 나라의 고유의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과 외국에서 외국인 학자가 미국을 연구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 타인의 입장에서 타자를 연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 기존의 학문 분야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과 미국 지역학의 영역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타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미국인이 자신을 연구할 때의 학문적 관심과 지향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밖에서 미국을 연구할 때의 학문의 동기 및 관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유럽 문명과 구분되는 미국만의 독특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유럽 문명과 섞인 형태이더라도 미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할 것이다. 외국인이 미국을 연구한다면 그의 관심이 드물게는 미국만의 고유한 것에 대한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잠재적 혹은 현재적 의도에서 출발한다.

타자로서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미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미국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필요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타자로서 미국 문화를 연구하더라도 미국 문화의 고유한 것을 발굴하려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대신 미국 문화 전반 혹은 구체적인 문화 현상을 잘 이해하는 데 관심이 클 것이다. 이 경우 미국학에서 연구된 미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지식은 미국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나, 미국 문화의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 전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다면 미국적인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며 미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요원할 것이다.

논의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여기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국학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학은 1920, 30년대 미국의 유럽에 대한 지적 의존에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부터 태동하였다. 이들은 미국인의 고유한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미국적인 무엇(Americanness)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미국의 고급 문학과 역사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대학에서 미국학(American Studies)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분과를 조직하였다. 한편 1960년대 들어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미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회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소수 민족과 여성들이 기존의 백인 주류 집단의 사회문화적 억압성에 눈뜨게 되면서 미국적인 무엇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및 이것이 설사 있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방법론적 혼돈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혹은 이러한 모든 다양성을 뛰어넘는 미국적인 단일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미국의 보수와 진보사이에 문화 전쟁(culture war)라는 말로

지칭되기까지 한다.

미국학이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연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미국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이다. 만일 모든 집단에 공통되는 미국적인 무엇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고 할 때, 미국학 자체가 다양한 분과 학문의 종합이라는 점과 뒤섞이면서 학문의 정체성은 극도로 복잡적이 되어 개별 분과 학문들의 임의적인 집합으로 어설프게 유지되는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타자로서 미국에 대한 연구가 미국의 특수성을 찾는 데 둘 것이냐, 혹은 미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데 둘 것인가는 연구자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외국의 연구자로서 현실적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전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물론 외국의 연구자가 미국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미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다 보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미국의 특수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에 도달할 수 있으나 이는 미국인 연구자들과 비교하여 매우 먼 길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타자로서 미국을 연구하는 데에는 각 분과 학문에서 미국에 대하여 연구한 지식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적인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과학문의 지식의 기반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미국인이 미국을 연구할 때 보다 한 단계 더 사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즉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 관하여 분과 학문의 보편적 지식과 이 지식을 적용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 이 보편적 지식을 적용한 미국의 사례에 대한 이해가 덧붙여지는 이해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왜냐 하면 분과학문의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은 채 타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다는 것은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분과학문에서 미국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미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미국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학의 경우 분과 학문 특히 문학과 역사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학문적 정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크

게 겪어왔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미국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에 대한 분과학문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미국인의 경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타자로서 미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다는 목적에서 미국을 연구할 때, 미국인의 경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타자로서의 미국 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미국학을 답습하기 보다는 지역 연구로서 미국에 대한 연구에 더 우선순위가 두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해는 외국에서 미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다(Desmond and Dominguez, 1996; Winks, 1998; Ickstadt, 2002).

이 경우 지역 연구로서 미국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제삼세계에 대한 지역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된다. 미국이란 나라는 매우 복잡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이미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식의 기반위에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분과학문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에 더하여 미국의 사례를 지역학이라는 이름 하에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교적 단순하고 정보가 제한된 제삼세계의 경우 다양한 분과학문의 보편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역 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학적 접근의 학문적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저자는 뻔족한 대답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몇 가지 생각은 있다. 하나는 미국의 학문 세계에서 분과학문의 벽이 매우 높아 학문 간에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연구가 이러한 분과학문의 벽을 낮추는 장으로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특히 타자를 연구하는 경우 종합적 이해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미국의 학자가 자신을 연구하는 경우보다 더 크므로 학문 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더 높다. 미국인 자신의 경우 삶의 전체성에 직접 접하므로 포괄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분과 학문의 관심에 친착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험에 직접 접하지 않은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의 경우 자신의 주요 관심사는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이해 또한 주변 분과 학문의 연구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학문 간에 연계를 통한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실제 연구 과정상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인 학자가 미국의 정치 과정을 연구할 때 정치학의 틀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학자의 경우에는 미국 사회구조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어느 정도 섭렵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과정을 연구할 경우에는 미국 학자의 경우보다 더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지역학적 접근을 취할 때, 기존의 미국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문화적 현상에만 이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인간의 경험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된 현상이며, 분석적으로 구분된 각각의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으므로 한 분야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들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알아야만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능력이 한정된 연구자로서 중요 분야를 모두 잘 알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개별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것이나, 자신이 특히 관심이 있는 한두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합으로 생각된다. 즉 타자로서 미국을 연구할 때에는 한두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백화점식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잡다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인문학에서 출발한 미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미국에 대한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지식의 섭렵이 요구되며, 거꾸로 사회과학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두 가지 접근 모두 지역 연구로서 미국의 연구를 접하는 방식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타자의 관점이 가진 장점을 살린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타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타자를 보게 된다. 즉 연구의 출발점에서부터 비교 문화적 관점을 갖고 있다.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타자를 바라볼 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눈치 채지 못한 타자의 특징적인 점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심리학 이론인 거울이론(Looking-glass Theory)에 따르면 아이들은 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며, 자신을 비추

는 타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폭도 넓어진다고 한다. 미국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 속에서 새로이 생겨난 것을 분석해보고 외부로부터 유래한 것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방법도 일리가 있을 것이나,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특징을 파악하는 접근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미국의 특이한 점은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봄으로서 더욱 잘 파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타자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비교 사회문화적 시각을 지닌 타자의 관점이 원주민의 관점보다 우월한 사례로 타문화에 관한 연구로 대표적인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의 『국화와 칼』을 잠시 살펴보자. 제2차대전 중 미국이 적국인 일본인의 심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에서 그녀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실제 그녀는 이 연구를 위해 일본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나,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파악하였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문화에 대한 대비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일본 문화의 특수성이 더 잘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을 연구한다고 할 때, 미국학이나 혹은 다른 분과학문의 영역에 한정하여 자신의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혹은 타자로서의 장점인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오는 통찰력 없이 미국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미국의 학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각 분과 학문에서 엄청난 지식을 쌓아 놓았고 이러한 배경위에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의 연구자가 새로운 시각과 접근 없이 학문적 기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의 미국학을 그대로 외국으로 옮겨 놓은 모습으로 미국을 연구한다면 타자로서 미국의 고유한 것을 잘 이해하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학문적 기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요컨대, 타자로서 미국의 연구는 보다 더 학제간 연구가 되어야 하며,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오는 통찰력이 들어간 연구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미국학의 국제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점에서 모두 이견이 없는 듯하다(Ford, 1996; Robin, 1993; Sakakibara, 1988; Zhu, 1987).

3.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미국 연구

우리나라에서 타자의 관점에서 본 미국 연구를 한다면 어떠한 접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론은 앞 절에서 모두 이야기 하였다. 여기서 지역 연구로서의 미국 연구라고 할 때 현재의 모습과 같이 주로 정치학적 접근에 치중된 제한적 의미의 지역 연구가 아니라 연구자의 출발점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어느 분과학문이 될 수 있으며 학제간 연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폭넓은 의미의 지역 연구를 지칭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미국 연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간단히 점검해 보자. 우리나라의 미국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 미국을 이해하는 연구와 미국학이라 하여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 미국을 연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백창재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미국연구 실태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¹⁾(백창재, 1998). 첫째는 미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주제가 설정되거나 혹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사례로서 미국을 선택한 경우보다는 연구 시점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편의에 따라 현안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는 1990년대 들어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법, 외교 안보, 정치와 같은 일부 연구 주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미국에 대한 균형된 이해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 요컨대, “국내의 미국연구는 현실적 필요성에 압도되어 왔고, 그때그때의 유행중인 이슈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얕은 경험적 지식을 동원해왔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국내 미국연구의 발전을 위한 연구업적의 축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다(백창재, 1998:288-9).

한편 한국아메리카학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학 연구는 미국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영문학자인 이상섭은 지역연구로서의 문학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아메리카학회의 기관지인 미국학논집에 게재된 글을 분석하였다(이상섭, 1998). 그에 따르면 외국인 미국연구자들의 기고를 제외하면 한국인 학자

1) 미국의 특정 작가나 작품 혹은 사상가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제외한 분석임.

들에 의한 본격적인 미국지역연구 논문은 아주 적으며, 따라서 “한국의 미국학은 거의 미국문학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미국학이 1960년대까지 미국의 문학 속에서 미국인의 고유한 정신을 찾았던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국학 연구가 미국 문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는 이러한 문학 편중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학계의 매우 기이한 현상의 하나는 우리나라와 이처럼 중요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역사나 철학이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한다(이상섭, 1998: 338). 인문학적인 이해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미국학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는 인문학내에서도 다학문적인 접근이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미국은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일도 우리에게 금방 여파를 미칠 정도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므로 미국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 고유한 것을 포함하여 미국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히면서도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분과학문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것과 함께 다학제간의 연계를 통하여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의미한다. 미국학에서 과거 주장했던 미국의 본질에 대한 가정이 허물어진 마당에 미국학이 우리의 미국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위하여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기는 힘들다²⁾.

유럽과 미국간의 관계와는 달리 우리와 미국간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이 이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반면 미국 자체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데 도움을 받는 측면이 연구의 동기로 강하게 작용한다. 이 경우 미국 학자

2) 미국에서 행해지는 미국학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별도의 학문 분과로 발전시킬 것인가 혹은 본고에서 주장하듯이 미국 지역학으로서 미국 연구에 대한 종합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는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 요컨대 전자와 후자는 구별되는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연선(2001)의 경우 미국에서 행해지는 인문학으로서의 미국학을 선택할 것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이홍종(2001)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종합된 학제간 접근으로서 미국학을 선택하고 있다.

들이 축적한 기존의 풍부한 미국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것이 연구 활동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 이러한 연구 또한 질적으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앞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새로운 것을 기존의 지식체계에 추가한다는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학자로서 미국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학자들이 자신의 사회를 보는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을 연구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학제간 연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거나 혹은 한국적인 시각을 갖고 미국을 들여다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자신을 분석하는 데에서 학제간 연구가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을 우리도 또한 안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지역 연구 접근과 같이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적극적 노력이 없이 각 분과의 틀에서 미국의 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한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한국적인 시각에서 미국을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한국적인 시각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한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즉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 미국에 대한 연구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하여 잘 알면 거꾸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 문화를 비교한다고 할 때, 둘간에 공유되는 부분이 클 때 차이가 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즉 비교하는 두 사회 혹은 문화가 유사할 경우 비교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반면 두 사회간에 매우 다양한 요소에서 차이가 벌어질 경우 어느 특정 요소 때문에 두 사회 혹은 문화간에 현상적으로 다른 모습이 만들어진 것인지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경제적 발달 수준의 격차 및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화적 차이 또한 엄청나므로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연구자라면 미국을 연구할 때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미국의 현상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것이 사회경제적 발달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혹은 동양과 서양간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지 혹은 서양의 여타 국가와도 차이를 보이는 미국적인 특수성인지를 구분해 나가는 이중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한국과 미국간에 보이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미국과 다른 서구 사회 문화와의 차이와 공통점을 검토해보아 이것이 다른 서구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지를 보아야 한다. 만일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 한국과 미국간에 보이는 차이는 한국과 서구 사회 일반간의 차이로서 분석을 해야 한다.

반면 미국과 다른 서구 사회문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우선 서구 사회문화와의 비교에서 밝혀내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다음단계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한국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러하지 혹은 동양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하지 혹은 제삼세계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하지를 밝히는 작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요컨대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놓인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거나, 같은 유럽 문화에 속하는 미국과 독일을 비교하거나,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하는 것보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건 혹은 한국적인 시각을 통해서건 미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은 한국의 학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미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물론 미국인 학자들이 소홀히 하는 미국의 한국계 이민자와 관련된 연구나, 혹은 한미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그러나 미국 사회 자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면 한국의 학자는 미국 학자나 혹은 유럽 학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 학자의 미국에 대한 연구의 수요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다. 학문은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는 이상적인 측면을 잠시 옆에 접어놓는다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의 미국에 대한 연구의 주요 수요자는 한국인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한국인 학자가 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학문적 활동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인 학자는 한국인의 관심에 맞추어 미국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데서 미국인 학자가 한국인들을 위하여 할 수 없는 혹은 하려고 하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연구가 각 국가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상대

를 이해한다는 실천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만큼 지역 연구로서 미국 연구 또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취사선택을 하여 정리한 미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미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나중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지역연구로서 미국 연구는 실천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실용 학문이며, 이 학문의 수요자는 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이 가장 상위의 지위를 차지하며,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가공하는 작업은 하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역학으로서 미국에 대한 연구는 학문 세계의 이등 시민의 입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가 한국에서 미국을 연구할 때 이점은 일단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창조적인 작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학문 세계에서 일등시민으로 발돋움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타자로서의 장점을 살려 미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³⁾.

3) 물론 이러한 한계를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 학자가 미국에서 상당기간 거주하고 그곳의 사회 및 학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미국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며, 우수한 한국인 연구자들이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일,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국제지역연구』 4권 1호, 1-21쪽, 1996.
- 김경일, 1998,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17-49쪽, 1996.
- 최협, “인류학과 지역연구”,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출판사, 19-34쪽, 1997.
- 백창제, “국내 미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75-293쪽, 1998.
- 아메, 유미코, “일본의 지역연구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2권 3호, 1998.
- 이상섭, “지역연구로서의 문학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섭,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331-348쪽, 1998.
- 이홍중, “지역연구로서의 미국정치 연구의 영역과 과제”, 『미국학논집』 35집 1호. 273-289쪽, 2001.
- 정연선, “미국학의 이론과 연구 방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미연구소 제2회 세미나 발표문, 2001.
- Ickstadt, Heinz, “American Studi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American Quarterly*, 54(4): 543-562, 2002.
- Desmond, Jane C. and Virginia R. Dominguez, “Resituating American Studies in a Critical Internationalism”, *American Quarterly*, 48(3): 475-490, 1996.
- Ford, Stacilee and Clyde Haulman, “To Touch the Trends, Internationalizing American Studies: Perspectives from Hong Kong and Asia”,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36(2): 42-58, 1996.
- Robin, Ron, “The Outsider as Marginal Scholar: Reflections on the Past, the Foreign and Comparative Studies in American History”,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31(1): 117-125, 1993.

- Sakakibara, Yasuo, "American Studies in Japan: An Economist's point of view",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6(1) 31-40, 1988.
- Winks, Robin W. "At Home Abroad/ Abroad at Home",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6(1): 72-80, 1988.
- Zhu, Yongtao, "American Studies in China",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5(2):3-71, 1987.

Abstract

Studying United State of America from Other's Perspectives

Lee, Hyun Song

The focus of this paper is How the United States can be studied as 'the other'. For this purpose the state of area studies i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overall and pragmatic approach to less well-known regions to others. The study of US by others is argued to be different from the American Studies by Americans, which tends to be an expression of nationalistic ideas in searching for their own identity. The author argues that studying the US as the other should take a eclectic strategy combined with several independent disciplin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eep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Finally, the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US that Korean researchers face are discussed. Because of the substantial gap i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onfigu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researchers need to take a double cross-thinking process in order to compare the two societies and cultures. The study of the US as the other should take a stepwise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the US: the first step is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major key aspects of society and culture, and then digging into the particularities of the U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ey Words :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American Studies, Area Studies, Research Methodology.

주제어 : 미국, 지역학, 미국학, 미국 지역학, 연구 방법론.